# '98년도 국내 레이저 산업의 전망

글 : (주)한광 영업부장 이현장

올 한해 레이저산업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해 해외 시장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레이저 산업은 아직 전체적 규모면에서 협소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더욱이 최근 수년간 공작기계산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는 불황 속에서도 레이저 산업의 성장은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 한 것이었다.

이는 그 동안 레이저 가공기 제작업체들의 활발한 투자 및 적극적 영업 활동, 자동차, 전자산업등 관련 산업의 성장, 레이저 가공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의 금융조건 등의 완화, 레이저 가공기에 대한 꾸준한 인식 변화 및 저변 확대 등으로 인한 뒷받침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레이저 산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레이저 시장을 주도해온 절단가공 뿐만 아니라 마킹,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더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레이저 가공기의 수요는 꾸준히 향상될 것이며 미래의 산업을 주도할 첨단 산업으로서 레이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레이저 시장의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IMF 체제하에서 98년의 레이저 산업을 전망해 볼 때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전반의 경기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하였던 레이저 산업은 갑작스런 IMF체제의 여파로 여타 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의 극심한 어려움으로 레이저 산업의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산업전반에 미치는 어려움은 레이저 산업에도 예외일 수가 없다.

고가 레이저 가공기의 구매는 많은 업체들이 규모의 영세성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리스회사나 할부금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기를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렵게 구입한다 할지라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리 등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가공기 구매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IMF체제하에서 '98년의 레이저산업은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해 국내 및 해외시장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에서 레이저 산업의 지속적 성장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둘째로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이 계속되는 경우 레이저 가공기의 파급 효과가 큰 레이저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가공기 수요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레이저 가공기의 주요 수요업체는 가공기 보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임가공 전문업체와 레이저 가공기를 자체 보유, 자체 물량을 가공하는 업체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최근 레이저 수요업체들의 동향을 주목해 볼 때 임가공 전문업체들의 가공 수주 물량이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레이저 가공기의 가공시간을 단축시키고 가공시간의 단축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래업체들의 잇따른 부도와 최근 최악의 금융상황과 연관하여 자금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 가공비용의 수금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자체물량을 가공하는 레이저 보유 업체들도 임가공 전문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가공기의 가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레이저 가공기 수요업체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만으로도 가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기계 가동효율을 극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레이저 가공기의 추가 구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A/S비용 및 부품가격, 기계 운영비용의 증가, 가공비 하락 등은 가공기 수요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신규로 레이저 가공기를 구매하려는 업체들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적극적 기술 개발과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그 동안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이루어 온 레이저 가공기 제조업체들 또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레이저 가공기 제조업체들의 기술 개발 노력으로 레이저 가공기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기계 구조나 가격 구조면에서 많은 부분을 외국 기술과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급격한 환율 상승은 원자재 및 부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공기 납품가격의 불가피한 인상으로 이어져 가공기의 수요가 절박한 업체가 아니고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가공기 구입의 시기를 적절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입 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레이저 가공기의 구매를 원하는 수요자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과 같이 자금흐름 및 신용 상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고가의 레이저 가공기를 선뜻 판매하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저 가공기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 레이저 산업의 성장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국내 레이저 산업의 침체는 최악의 경우 레이저 가공기 관련 제조업체들의 도산마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이저 가공기에 대한 지속적 기술 개발 및 신규투자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98년도 국내 레이저 산업의 단기적 전망은 질적, 양적으로 모두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8년도의 레이저 산업 전망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소극적 태도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내 레이저 산업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레이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국내 시장 뿐 아니라 보다 넓은 해외 시장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기술 인력 확보 및 양성을 통해 앞으로의 성장에 대비하고 그러한 성장에 걸맞는 효율적인 조직정비 및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구축하는 등 더욱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휴식공간/용어상식

### BIS비율/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BIS란 국제결재은행 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약자이다. 1차대전 후 독일의 전쟁배상금 지불을 취급하기 위해, 또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30년, 스위스 Basel에 하나의 국제은행이 설립되었으며, 이 은행이 발전하여, 경제 · 금융의 연구 · 자문기관으로서, 또 특정 협약의 이행을 위한 기술기관으로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것이 국제결재은행의 모체이다.

이 은행의 60지분(持分)으로 구성된 자본금은 15억 금 프랑(Gold Franc)이며 이중 25%만 납입돼 있다. 이 자본금의 출자금은 본래 벨기에, 프랑스, 서독, 영국 및 이탈리아의 각 중앙은행과 일본 및 미국의 은행단이 보증하였었다. 미국이 소유했던 모든 지분(持分)는 미국시장에 매각되었고, 그 대부분을 유럽인들이 매수하였다.

한편, 일본이 소유했던 지분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매수해 버렸다.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ory Fund)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설립된 1944년, 미국 New Hampshire주의 Bretten Wood회의에서 이 은행의 청산(淸算)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1947년 이 은행은 마샬계획(Marshall Plan)에 의해 창시된 제1차 유럽상환협약(Intra-European Compensation Agreement)의 이행기관으로 지정된데 이어 1950년에는 유럽경제협력기구(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의 대행기관으로서 유럽상환동맹(European Payments Union)의 일을 보게 되었다.

1958년말 European Payments Union이 청산된 후 이 은행은 그의 후신(後身)으로서 다국간(多國間)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유럽통화협약기구(European Monetary Agreement)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은행은 그 전인 1954년에는 유럽석탄 · 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금고(金庫) 역할을 하도록 위탁받은 바도 있었다.

이 은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여러나라의 통화정책에 부합하도록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은행이 여신(與信)을 공여하거나, 금과 외환을 매매하는 일은 단기적 기조위에서만 할 수 있다. 이 은행은 194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흑자를 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배당금의 지급은 중단되었다가 1951년에 재개되었다고 한다. 이 은행은 관련국 중앙은행의 총재들과 기타 선출된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그래서 IMF가 요구하는 BIS의 자기자본비율이란 위와같은 경로를 거쳐 오늘날 존재하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의 자기자본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